

#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조선의 교육제도

## 국 제 사 회 계 가 찬 양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 밑에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는 사회주의조선은 국제사회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로씨야 전련맹블쉐비코프 산담은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는 전기간 후대교육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었다.

탁월한 국가정치활동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엄숙한 시련의 시기에도 무로교육제를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교육사

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 훌륭한 교육제도를 세우시고 인재육성사업을 전방성있게 추진하시었다.

조선은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인 초등 및 중등의무교육제를 내온 조선은 1960년대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1970년대초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교육제도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

육체제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도 발전하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러진 교육기자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부문 단위들에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새 학년도 개학식이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조선의 학생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시켜오신 교육체제, 오늘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어나가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을

에서 무료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나 이 제 리 아 김 일 성 - 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조선의 교육제도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로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발전을 담보할뿐아니라 뛰어난 인재들을 수많이 배출하고있다.

최근년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학과경연들과 국제몽클에서 조선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려이어 우승하고있는 현실은 조선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에는 고등교육체제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된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학생들은 무료로, 지어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또한 공장대학, 농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기초과학기술과

전문기술을 가르쳐주고있다. 도이칠란드 MS러행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지식인대군이 자라났다.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이 키워낸 인적자원은 강성국가건설의 훌륭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이며 국가경제잠재력의 과시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조선에서는 100% 자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거하여 성공시켰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하나인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널리 도입하였다.

또한 핵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체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본사기자

있다고 말하였다. 줄거움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은 정구장과 사격장, 활쏘기장, 미니골프장의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더욱 인상깊은것은 금강산과 묘향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의 덕수터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노동자 최철진은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덕수도 맞스라면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린다.》고 흥에 떠서 말하였다. 청춘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떠들썩한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 철 호



##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로부터 호평 받는 병원

평양천선병원은 공화국에 주재하고있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자주 찾아와 치료를 받는 병원이다.

에로부터 집 떠나면 교생이라고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병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서게 될것이다. 하지만 이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러한 우려와 걱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갓가지 꽃과 나무들이 숲을 이룬 주위환경은 병원이라는 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아담하게 보이는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에는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을 갖춘 30여개의 전문과들이 있어 어떤 병이나 다 치료할수 있다.

의사, 간호원들의 수준 또한 높다. 이들은 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들로서 자신들이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있다.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사심 없는 태도, 환자들에게 바쳐지는 아낌없는 지성에서 친

외동포들은 한결같이 같은 동포한테서 치료를 받으니까 마음이 좋다. 의사, 간호원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만들어 환자치료에 이바지한 이야기며 생일상까지 차려준 이야기들은 이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 세계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들의 정성으로 병을 털고 일어나 생명을 되찾은 기적같은 이야기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오래동안 고생하던 탈모증을 고치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이진 중국주재 팔레스티나대사관 참사의 딸이였던 루바 자베르며 1991년부터 16년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제일본조 선인총련합회 강북심상공인의 딸 랑송내녀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 병원에서 꽃핀것이다.

하기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재미동포 정기렬과 로길남, 리금순을 비롯한 해

본사기자 박 철 남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모란봉악단의 노래를 사랑하고 있다. 일터에서, 마을에서, 일참에도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귀기울여 들어보노라면 대개 모란봉악단의 노래들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모란봉악단 시작음악회에서 나온 노래중의 하나인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

는 건드러진 민요풍의 곡도 멋있네다가 가사 또한 독특하여 나오자마자 인기를 끌고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었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로 노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다 푸력 좋아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젊은이들도 좋아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장년, 로년기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래가 나왔다고 푸력 좋아한다. 인생을 열렬한 애국심 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그들이 아닌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전화의 나날도, 어

## 랑만넘친 인생의 노래

하기에 그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는 인생길은 후회와 절망감이 아니라 뉘엿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그 긍지와 자부심은 전쟁로병들을 존경하며 혁명선배들을 사회적으로 대대위주 우대해주는 공화국의 정책에 의해 더욱 빛나고있다.

문득 남조선의 어느 한 자리에 실린 사진이 떠오른다. 《로인의 삶, 이렇게 힘겨운데...》라는 제목으로 커다란 손수레에 파지를 잔뜩 싣고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걷는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집이 너무 무거운지 싣듯 출발하지 못하는 할머니, 한끼 밥값정도의 돈을 벌수 있는 파지를 모으기 위해 비까지 맞아가며 예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맨 마지막줄이 지금도 생생하다. 《저

파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로년층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가 나눠가질수는 없는것가요.》

지나해 10월 2일에는 남조선의 부산에서 《로인의 날》을 이틀 앞둔 9월 30일 숨진지 5년이 넘는 60대할머니가 발견되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은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로인자살률이 1위라고 한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행복한 앞날에 대한 희망안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의 삶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며 다가온 여생을 즐겁게 멋있게 보내는 로년기의 사람들, 선배들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앞날을 그려보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젊은이를. 이런 뜻과 랑만을 담아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다.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 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 넘칠 우리 생활 ...

본사기자 김 춘 경

평양시내의 이르는 곳마다에 체육공원, 아동공원, 화초공원들이 훌륭히 꾸려져 사람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정입다리아매에 위치한 화초공원도 그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는 홍초, 나팔꽃, 천수국, 만수국, 맨드라미, 불꽃 등 수십여종의 화초들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고 있었다.

다리밧의 공지를 리용하여 꾸린 공원인지라 부지는 비록 넓지 않아도 모래터배구장, 탁구장, 정구장, 활쏘기장, 사격장, 미니골프장 등

## 운동도 하고 격수로 맞으며...

### 평양시 만경대구역 화초공원

체육 및 문화오락을 즐길수 있는 시설들이 그뿐히 갖추어져있었다.

기자와 만난 이곳 공원의 리춘실관리원은 꾸러진지 얼마 안되지만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력을 단련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때마침 공원의 모래터배구장에서는 《국제로인의 날》을 앞두고 만경대구역 팔팔1동과 당상2동사이에 배구예선경기가 진행되고있었다.

선수들은 모두 로인들이었

지만 공을 땀시있게 타격하는 모습이며 능숙한 동작으로 방어를 하는 그들을 보느라니 하나같이 이팔청춘 못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팔과리와 복을 두드리며 응원하는 인민반사람들의 열기면 모습도 볼만 했다.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에서 60층, 90층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하는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러 탁구장으로 걸음을 옮긴 기자의 눈앞에 아버지과 딸이 진행하는 탁구경기가 안겨왔다. 전문선수들 못지 않게 치밀한 공격과 방어로 일관된 경기를 쉽게 승부가 날것 같지 않았다.

《우리 영춘이 이겨라!》하고 열심히 딸을 응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른 응원자들도 합세했다. 당상2동 23반에 산다는 김옥희녀성은 남편과 딸이 이곳에서 탁구경기를 즐겨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탁구실력이 높아가고

을 찾아서

있다고 말하였다. 줄거움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은 정구장과 사격장, 활쏘기장, 미니골프장의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더욱 인상깊은것은 금강산과 묘향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의 덕수터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노동자 최철진은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덕수도 맞스라면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린다.》고 흥에 떠서 말하였다. 청춘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떠들썩한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 철 호



##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진행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옷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각지 공장, 기업소, 편의양복점들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교육,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조선옷들과 남녀제절옷 1 200여점이 전시회에 출품되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옷차림에서도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록 현명하게 이끄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성구역종합양복점,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



동해조선옷점, 신의주시편의봉사관리소 청송조선옷점에 서 내놓은 조선옷들은 조선녀성들의 몸매와 정서에 맞게 아름답고 세련된 곡선미를 살리고 부드러운 색채를 잘 조화시킨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나이와 기호에 따라 색배합과 무늬구성을 잘하여 료동적이면서도 현대적미를 둔

군 다양한 형태의 계절옷들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순회우승기와 컵이 수여되고 해당 시상상이 있었다.

은 나라에 민족의 향기를 더해준 전시회는 우리 식의 옷을 더욱 발전보급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고있는 요즘 은 나라의 공장과 일터, 학교와 마을의 그 어딜가나 다채로운 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는 사람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모습들을 볼수 있다.

이르는 곳마다에 멋있게 꾸러진 공원들에서도 떠들썩한 응원속에 배구, 축구, 정구, 바드민톤경기에 여념이 없거나 건강래전도, 대중춤제조를 하는 청춘남녀들, 로라스케트를 타며 온갖 기교를 부리는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로 밤낮이 따로없이 흥성 거린다.

이곳 체육기자재상점이 류달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 으레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오면 축구공, 배구공, 통구공과 같은 공류와 탁구채, 정구채, 바드민톤채를 비롯한 각종 체류, 마라손화, 축구화, 통구화 등 신발류들, 호수벌에 따르는 경기복 및 훈련복으로부러 아령, 구간, 손힘키구기, 땀줄, 호각 등과 같은 보조기자재들에 이르기까지 요구대로 구입할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산 상표를

## 체육기자재구입으로 흥성인다

《탁구채와 탁구공이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배구공을 하나 봅시다.》하며 저마끔 체육기자재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소학교 축구선수인 손자녀석이 어찌나 별찬지 운동복을 당해내지 못하겠다.》며 얼마전엔 손자에게 다니는 학교가 시적으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는 할머니도 있다.

이곳 체육기자재상점이 류달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 으레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오면 축구공, 배구공, 통구공과 같은 공류와 탁구채, 정구채, 바드민톤채를 비롯한 각종 체류, 마라손화, 축구화, 통구화 등 신발류들, 호수벌에 따르는 경기복 및 훈련복으로부러 아령, 구간, 손힘키구기, 땀줄, 호각 등과 같은 보조기자재들에 이르기까지 요구대로 구입할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산 상표를

단 질 좋고 다양한 체육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와 호평을 받고있다. 그래서인지 상점안에 들어와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체육기자재들을 번갈아보며 어느것을 살것인가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산단위들 사이에 벌어지는 기술경쟁, 제품의 질제고경쟁의 열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곳 상점의 림경희(41살) 지배인은 《〈대생산〉 상표를 단 축구공, 배구공, 통구공들의 질이 높아 수입산 제품 못지 않다며 특히 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과 체육예호가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다.

그는 15년동안 체육기자재상점에서 일해 오지만 요즘처럼 체육기자재에 대한 사람들

의 열의가 높은것을 보지 못했다며 어떤 때는 손님들의 다양한 수요를 미처 충족시키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다고 말한다.

이곳 상점의 봉사자들은 대중체육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기자재들에 대한 체육예호가들의 수요를 미리미리 장악하여 일터와 가정들에게

지 찾아가 주문봉사를 해주 고있는데 누구나 좋아하고있다고 한다. 체육기자재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료해하여 생산단위들에 나가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제품의 질제고에도 한몫 하고있다.

높아가는 체육기자재구입 열기,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에 대중체육열풍을 안아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불씨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흥 범 식

